

김용민브리핑

2017년 1월 3일 화요일

발행처 일곱시간행블그네

홈페이지 <http://www.poddbang.com/ch/9938>
 전자우편 kimyongminpd@gmail.com
 텔레그램 <https://telegram.me/kimyongmin>

전통방식 속성! 최고의 맛은 알싸한홍어	1599-6456, 010-9384-7970 allsahan.co.kr
대한민국 1등 품질 홍삼은 정성농장홍삼	041-754-0884, 010-9754-6972 jeongseongfarm.com
시대와 삶을 함께 읽는다! 한국현대생활사	창작과비평사 031-955-3333 goo.gl/YDYJDW
바로 잡힌 골반, 건강한 인생 바디로직	070-8220-5796 store.bodylogic.co.kr
무료 웹 애니메이션 채널 좀바라TV	032-258-6261 zombara.com
최고급 러시아 냉동대게 대게직거래장터	1644-9047 cafe.naver.com/snowcrab09
안티요요! 다이어트 쇼핑몰은 비타샵	031-783-6007 vitashop.co.kr
예쁜 구멍이 쫌! 장 청소는 미궁장사랑	070-4115-0365, 010-2892-0365 jangsarang.com
아이에서 어른까지 안심 사용하는 수아비스화장품	1688-9113, 031-717-1613 www.suavisslab.com
한 번 가면 계속 가게되는 풍무양고기	031-902-9292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770 삼희포시존프라자 2층
세계 최고 브랜드에 10년 품질보증 매트리스엠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25번길 28 www.mattressm.com
진보가 만든 상품판촉물은 내피알	032-519-4800 nepr.co.kr
일반 짜장 파스타 맛에 취했다 킹닭갈비	070-4217-7179 goo.gl/XYfR9D
김용민 브리핑 대리운전 브리핑대리운전	1522-9687 박근혜 구속시 1회 무료이용
정통 포루투갈 에그타르트! 에그타르트 타르트콤 컨텍스트점	facebook.com/tartfarm13 고양 일산서구 대화동 2602 레이킨스몰 154호
김치맛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이담채김치	1544-4586 edamche.com
김영란법 걱정 없는 최고의 선물! 전창걸의새싹땅콩차	070-8635-1288 전창걸.com
축하 위로 고백 응원에는 좋은사람과플라워	1566-0263 flowergood.co.kr
월1만원 황제보령커피 그리고 월7천원온전자보험카페	02-849-9730 cafe.daum.net/7000kim
내 아이 먹고 먹을 수 있는 와우전복	010-2443-0818 wowabalone.modoo.at
한우 사골에 가미술에 팔팔 끓인 연지연곰탕	0-10-7252-1114, 031-989-9968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6-5

노후핵발전소 폐쇄
신규핵발전소 확대중단!

잘가라! 핵발전소

아세요?

세계 최대 규모 핵발전소 밀집지역 있는 나라가
 원자력안전기구가 동시 및 중대사고 대비 없는 나라가
 지진 위험지대지만 내진설계는 20~30배 낮게 적용한 나라가
 사고 나지 않았음에도 갑상선암, 핵폐기물 등의 문제 발생을 야기하는 나라가
 이 많은 핵발전소를 안 만들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걸요!
 원자력으로 불리지만 본질은 핵인
핵발전소를 반대합니다



정유라의 수상한 인터뷰

김용민 / 김용민브리핑 대표 프로듀서

덴마크에서 체포된 정유라가 한국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갈바닥저널리스트가 한국 시각으로 오늘 새벽 3시에 녹취 파일을 공개했는데요.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나라 전체를 들썩이던 자가 도망 다니다가 붙잡혀놓고는 기다렸다는 듯이 청산유수로 말을 이어갈까요?

내용을 분석해보지요. 휴학하지 않고 왜 유럽으로 건너왔는다고 물었을 때, 본인은 자퇴를 원했는데 처리가 안됐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이라면 정유라가 원치도 않는데 교수들이 기를 쓰고 정유라의 학점을 유지해준 꼴입니다.

삼성이 자신에게 사 준 말과 차를 회수해갔다고 하는데, 삼성이 사 준 것이 아니라 빌려줬다는 식으로 스토리를 짠 흔적이 보입니다.

자신의 엄마로 알려진 최순실과의 불화를 최대한 부각한 점도 눈길을 끕니다. 사실 정유라가 최순실과 갈등을 빚은 것은 새로운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럽으로 건너 와서 까지 삼성의 어마어마한 혜택과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도 모녀간 대화를 못할 정도의 상황이었다? 여기에는 빈틈이 보입니다.

그래서 둘이 제3자인 박원호 승마협회 전무를 사이에 끼고 대화를 할 정도의 갈등이었다는 주장 역시 뭔가 알리바이를 만들려는 흔적으로 보일 뿐입니다. 나도 모르게 엄마가 뭘 했다, 이런 맥락 말입니다.

특히 수상한 점은 자신의 재산 관련 논란에 대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증여받았는지를 소상히 밝힌 부분입니다. 논란이 된 조세포탈 의혹과 관련해서는 완납했다고 강조했네요. 아울러 본인에게 불리한 대목은 남이 일러준 대로 사인만 했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박근혜는 초등학교 때 보기만 했다, 누가 묻지 않았는데도 만난 카페 이름까지 대며 차은택은 딱 한 번 봤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정유라의 수상한 인터뷰에 진실의 모든 것이 담겼다는 판단, 유보하겠습니다. 오롯이 특검의 몫입니다.

오 | 늘 | 의 | 김 | 용 | 민 | 브 | 리 | 핑

■ 1월 3일(화) 1부 | "더민주 대권주자, 이런 지지자 잡아야 이겨"

- [오프닝] 도망가다 잡힌 정유라의 기자회견 육성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피의자대서도 특혜 요구하는 정유라 "날 불구속하라"
 -삼성, '갑압에 의한 박근혜 뇌물 상납' 시인할 듯
 -기무사령관, 국방장관 아닌 우병우에 비위사실 보고
 -국민 78% "개헌해야" 그런데 절반 "대선 이후"
 -이 집안은 왜?...박근혜 일가 주변 꼬리 무는 죽음
 [뉴스듣기능력평가] 懇談會(간담회)의 懇이 있는 단어?
 [국제뉴스의 맥] 황준호 외교통일전문기자
 -추절 앞둔 상황·중국, 한국 관광의 통로 좁혀냈다
 -미국은 사드 예산 적게 책정·한국에 떠넘기려고?
 [경제의 속살] 이완배 민중의소리 기자
 -하루 만에 박살나는 물산·모직 합병 관련 박근혜 논리
 -[화요 경제학] 팬덤의 경제학·추종자와는 결별해야
 [공화국 논쟁] 인명진에 대한 강도높은 중대조치

정유라 체포로 게이트 열렸다

朝鮮日報 정유라 “불구속하면 귀국하겠다”

정유라가 불구속 수사를 보장하면 자진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2살인 이들을 돌볼 수 있게 불구속 수사를 보장받는다면 강제송환 거부 절차를 신청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이런 의사를 전달받고 구체적인 조건을 조율 중이다. 정유라는 덴마크 올보르 법원에서 열린 예비 심리에서도 석방을 전제 조건으로 자진귀국 의사를 밝혔다.

경향신문 정유라 “삼성 돈, 엄마만 알아”

정유라는 “삼성이 스폰서를 해서 말을 타러 독일에 왔으며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며 무고함을 주장했다. 덴마크 올보르 법원 구류심사과정에서 검사와 변호사의 신문에 정유라가 이렇게 답변한 것이다. 또한 엄마가 몇몇 서류에 사인을 하라고 해서 했을 뿐 삼성에서 준 돈에 대한 것은 승마코치와 엄마만 안다고 밝혔다. 정유라는 사전에 누군가로부터 치밀하게 법률적 조언을 받은 듯 자신에게 적용될 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모든 혐의를 최순실에게 미루는 태도를 보였다.

박근혜·이재용의 운명은?

힌거레 차, 이재용 독대 때 뭐라 했을까?

대통령 박근혜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과 관련한 개입 의혹을 일축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만든 ‘대통령 말씀자료’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시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라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이 문건은 지난해 7월 박근혜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할 때 만든 자료다. 두 회사의 합병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박근혜가 인지하고 있음을 가리키는 대목이다.

경향신문 이재용 ‘강압 의한 뇌물’ 시인할 듯

삼성이 “대통령 박근혜의 강한 압박에 못 이겨 최순실 모녀를 지원했다”는 취지의 수사 대응 전략을 정했다.

지난해 7월 박근혜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독대하며 승마 지원을 강하게 압박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회의를 소집했다는 것이다. 박근혜로부터 강요와 협박을 받은 ‘피해자’라는 점을 주장하며 뇌물죄를 피해가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법조계는 이재용 부회장이 위증 혐의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최순실에 대한 지원 사실을 나중에 보고받았다고 말한 바 있기 때문이다.

“고모가 진짜 무서운 사람...”

한국일보 박근혜 주변, ‘죽음의 미스터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대통령 박근혜의 동생 박지만의 비서 주모씨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는 소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최근 의구심이 증폭된 박근혜 5촌 간 살인사건에 주모씨가 연루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타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박근혜 일가의 미스터리한 사망사건을 재조명했는데, 숨진 주모씨가 방송 제보자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한국일보 보도, 주진우 기자와 어제 연락했는데, 본인의 취재대상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용수·박용철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 중에 하나이긴 하다.

인사 전횡

朝鮮日報 “박근혜가 대한항공 인사 지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작성한 업무 수첩에서 ‘VIP 지시 사항’이라고 적힌 메모를 확보했다. 메모에는 당시 대한항공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이던 고모씨의 실명과 그를 연임시키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또한 특검팀은 “박근혜가 고씨 이름을 불러주면서 지시한 사항”이라는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은 박근혜의 지시를 대한항공에 전달했고, 실제 고씨는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프랑크푸르트 지점으로 근무했다. 조선일보 보도, 이와 관련한 앞선 보도는 최순실이 고모 씨를 밀어줬다고 했다. 그렇다면 박근혜는 심부름을 한 꼴이다.

1월 16일 콘텐츠 보강!

국민일보 우병우, 군 인사도 좌지우지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각종 기무사 내부 정보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비선 보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와 군에 따르면 조현천 사령관은 지난해 2월 차세대 전투기, F-X 시설사업 로비 실태 보고서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거치지 않고서 말이다. 한편 전달된 보고서에는 현대·대우건설이 국방부 특별건설심의위원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국방부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지시로 심의위원 68명 전원을 교체했다.

조기 대선 전망

朝鮮日報 반기문 지지율 하락 원인은?

신년 여론조사에서는 충청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앞서는 조사 결과가 많았다. 박근혜 게이트가 터지기 직전인 지난 9월 여론조사에서 반기문 전 총장이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을 두배 이상 앞선 것과 비교하면 변동 폭이 컸다. 이에 조선일보에서는 이런 분석을 내놓았다.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일시적 현상" "반 전 총장이 적극적 출마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 "충청 지역 특유의 본심을 숨기는 성향" 하지만 정치학자들 견해는 다르다. 그냥 반기문 지지율 하락이란 것.

중일일보 차기 대통령, 20대가 결정하나

중앙일보가 ‘조기대선이 열리면 투표할 생각입니까’라는 질문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20대의 92%가 ‘투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르면 2012년 투표율이 69%였던 20대 투표자가 최대 170만 명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의 표차는 108만 표 차이였다. 20대가 ‘대통령의 얼굴’을 바꿀 수도 있다.

헛물 켜는 김종인 손학규 등

경향신문 국민들이 원하는 개헌은?

경향신문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4명 중 3명 이상은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인 56%가 ‘대선을 치른 후에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개헌 필요성에는 대부분 동감하면서도 성급한 개헌 추진에는 반대하는 것이다. 개헌 방향은 권력구조 개편 논의보다 ‘기본권 보장 확대’를 요구하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경제민주화를 꼽았다.

한겨레 “‘대통령 4년 중임제’ 가장 선호”

한겨레가 ‘어떤 통치구조가 맞다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질문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기에 응답자의 약 38%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꼽아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정치권에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면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나 하는 대통령 권력 빼기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현행 대통령제의 틀을 크게 흔드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걸로 보인다. 김종인 씨 어쩌나.

반성은 없다

국민일보 이정현, 섭섭함에 울분

탈당 선언을 한 새누리당 이정현 전 대표가 “그들은 땅 짚고 헤엄치는 선거로 4선, 6선을 했다”며 당내 영남권 중진 의원들을 비판했다. 또한 “나는 호남 출신으로 이 당에 들어와 33년 동안 애쓴 죄박에 없다.”며 울분을 삭이지 못했다. 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인적 청산 대상으로 본인의 이름이 보도됐는데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다며 섭섭함을 토로했다. 손에 장이나 지지고나서 할 이야기.

오늘을 읽는 책
꺼베단리

자기만의 영달을 꾀하는 카멜레온같은 기회주의자로 한국 현대사의 왜곡된 모습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인물이다. 그는 뛰어난 의술 덕택에 극적으로 삶의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 그 와중에 그의 아내가 죽고 아들과 헤어지는 비극적인 일이 닥친다.
전광용 저 1961년작



朝鮮日報 빈집 백만채, 일본 전철 따라나

'2015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 수는 약 107만 가구로 집계됐다. 빈집이 사상 처음 100만 가구를 넘어선 것이다. 2050년에는 빈집의 수가 전체 가구의 10%인 300만 가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여파로 빈집이 급증해 사회문제가 된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 집값 바닥치고 있다, 이 때 사라고 보도한 적이 없었나? 그런데 빈집 타령이러나.

오늘의 칼럼

경향신문 “화산은 아직 폭발하지 않았다”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은 박래용 경향신문 논설위원의 “화산은 아직 폭발하지 않았다”다.

“역사는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저절로 바뀌지 않는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 불의가 가고 정의가 오지 않는다. 역사는 그냥 발전한 적이 없다. 기득권 수구세력이 변화를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역사의 진보는 이름 없는 수많은 개인들이 힘을 모을 때만 가능했다. 4·19혁명이 그랬고 6·10항쟁이 그랬다.

그렇게 죽어라 애써도 역사는 직선이 아닌, 나선형으로 발전한다고 이탈리아 역사학자 비코는 말했다.

대한민국은 지난 세월을 허송했다. 박근혜, 이명박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시민들의 손으로 뽑았다. 그사이 금쪽같은 시간이, 기회가, 에너지가 강물처럼 흘러갔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흐르는 강물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2000년 전 폼페이 사람들은 베수비오 화산을 끼고 살면서도 희희낙락하다 하루아침에 4m 두께의 화산재에 파묻혔다. 이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무슨 일이 닥쳤는지 잘 모르는 모습 그대로 발견됐다. 기존의 특권세력들이 이들과 똑같다. 기득권 세력들은 다른 세상을 사는 듯 살아왔다. 촛불은 박근혜의 무능뿐 아니라 재벌, 검찰, 정치, 언론 등에서 그동안 자행돼온 불의와 시민의 분노가 만난 곳에서 등장했다. 시민들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몰랐던 게 아니고 마그마처럼 부글부글 끓고 있었을 뿐이다.

새해는 불평등, 불공정, 불의의 구체제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특권과 반칙, 불법과 협잡이 판치는 세상을 끝내야 한다. 촛불은 화산 폭발의 전조(前兆)다. 민심이란 화산에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화산은 아직 폭발하지 않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현장 곳곳을 찾아 걸으며

길 위에서 민주와 정의를 묻고 답하다

2016년 1월 8일(일) 오전 10시
현대고등학교 정문(압구정)
모집인원 선착순 30명

김잡이
한중수
(작가 강남의 탄생 저자, 민주올레 기획자)

참가비
무료 (뒷물이 비용 1/3)

주최 및 주관
그네순실로드 기획위원회

신청 및 문의
그네순실로드 기획위원회
강북권 010-9871-8279
문자신청(신청인명/참가인원/연락처) 순

그네순실 로드(압구정/청담편)
현대고등학교 ▶ 광림교회 ▶ 청하썩당 ▶ 압구정 현대이파트 ▶ 스와교회 ▶ KEB하나은행 압구정 중앙지점 ▶ S7든 압구정점 ▶ 안주로 미승빌딩 ▶ 청담고등학교 ▶ 청담동 토니 앤 가이 미용실 ▶ 파인플루스 오피스텔 ▶ 차용 의원

현대고등학교
한대교
압구정역
신사동주민센터
한대교
도산공원

오는 길 압구정역 6번 출구 150m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127 현대고등학교

미디어협동조합
27기 대의원 워크샵 & 조합원 수련회

국민TV
미디어협동조합

치유칼럼 박래용의 친어업* 국민TV

2017년 1월 7일 오후 1시부터 1월 8일 오전 12시까지 (1박 2일)

계룡산 갑사유스호스텔 (충남 공주시 계룡면 갑사로 458-4)

미디어협동조합 대의원, 지역협의회 운영진 및 조합원과 조합원가족

참가비 **성인 2만원** (19세 미만 1만원)

행사문의 **02-3144-7737** 미디어협동조합사무국

주요일정

7일
노종면 & 김용민의 개편 브리핑
국민 tv 열개발 설명 및 홍보
2017년 조합 운영과 비전에 대한 분임토의
단체게임 및 정기자랑

8일
조식 후 아침산책, 권역별 피구대회